

■ [공통: 독서·문학]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8. ② 19. ① 20. ③  
 21. ⑤ 22. ② 23. ① 24. ③ 25. ③ 26. ② 27. ⑤ 28. ① 29. ④ 30. ①  
 31. ② 32. ② 33. ③ 34. ④

[1~3] 독서

[1~3] 독서 이론,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의 역할’

**지문해설** : 이 글은 독서에 초인지가 어떻게 동원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독서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 방법들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되는데, 독자는 이러한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주제]**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초인지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동원된다. 이때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을 점검과 조정의 과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독서 전략의 점검과 조정을 위해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인지가 동원되며,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

독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나타낸다.

##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예로,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A]에서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도 점검이 필요하다. ④ [A]에서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 ⑤ [A]에서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도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독서 방법 추론

**정답해설 :** ㉔에서 학생은 뜻을 모르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으나, 다시 등장했을 때에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 대해 ㉕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㉔는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 읽는 등의 여러 전략 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 것이다. ③ ㉔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읽는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㉔에서 말한 조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㉔에서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고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겠다고 한 것은 ㉔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한 것이

다. ⑤ ㉔에서 학생은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선택한 것이다.

[4~7] 독서

[4~7] 사회,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경마식 보도에 따른 선거 방송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마식 보도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다양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이 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임을 지적한 소수 의견도 있다.

[주제] 경마식 보도에 따른 선거 방송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경마식 보도가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② 경마식 보도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경마식 보도는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으로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으므로,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④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므로,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

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선거일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고 하였으므로,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는 3문단에 제시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로 보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다수 의견)는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며, ㉡(소수 의견)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가 있다고 본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 규정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수 의견은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의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

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소수 의견의 지적이 언급되었다.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수 의견에서 지적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㉔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㉕ 4문단에서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함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㉔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㉔(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㉕(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㉖(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 <보기>의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8.8%P)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라고 보도하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㉔와 ㉕에 모두 위배된다. ‘9일 전’이라는 시기는 ㉔, 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의 지지율이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의 지지율이 C 후보에 대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와 ㉕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㉔에 위배된다. 그리고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A 후보를 1위라고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하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하더라도 ㉔에 위배된다. ④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가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가 C 후보에 대해 지지율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A 후보와 B 후보를 서열화하는 보도는 ㉔에 위배된다. ㉕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2차 조사 결과를 서열화하지 않고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㉔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㉔에 위배된다.

[8~11] 독서

[8~11] 과학·기술,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으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다. 이때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주로 사용된다. 한편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 수집 시 측정 오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데이터 중에도 존재할 수 있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두 점을 지나는 가상의 직선과 각각의 데이터가 이루는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가 허용 범위에 들어오는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찾는 기법을 사용한다.

**[주제]**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기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데이터 값이 직선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고 하였으므로,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는 데이터가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점들이 주위에 모여 있는 가상의 직선 L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

---

다. ⑤ 3문단에서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라고 하였다. 측정 오류 등으로 발생한 데이터 값이라도 그 값과 실제 데이터의 다른 값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라면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 9.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그러므로 대푯값을 중앙값으로 설정할 경우 이상치의 값이 중앙값으로 선정된 수치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평균은 이상치의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데이터의 특성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이유는 중앙값이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특정 데이터가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것과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정렬하여 찾는다. ③ 데이터의 개수와 이상치의 개수는 무관하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평균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의 이유와는 무관하다. ④ 이상치가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이 변화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의 복잡성의 수준에 대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복잡성의 수준과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평균은 이상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수 있다. 한편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이런 경우 중앙값은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0.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A 기법에서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며,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그러므로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과의 거리의 허용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상치이더라도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B 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후보 직선을 이루는 두 점에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기법의 후보 직선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그은 직선이라고 하

였고, B 기법에서도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보 직선을 가정할 때 A 기법이 이상치를 제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B 기법은 후보 직선을 임의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B 기법에도 후보 직선을 가정할 때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 L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선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B 기법에서는 이상치를 포함해서 최적의 직선을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을 버릴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문턱값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에 대한 것이다.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게 된다.

## 1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㉞의 ‘빠지다’는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㉞는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져’라는 의미를 지닌 ‘누락되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 ㉡의 ‘나타내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를 ‘어떤 형상을 이루기’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하기’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를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다.’라는 의미를 지닌 ‘도래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의 ‘지나다’는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를 ‘장애물에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투과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의 ‘떨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를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여’라는 의미를 지닌 ‘소원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17] 독서

[12~14] 인문, (가)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 (나)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



---

**지문해설 :** (가)는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한비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보았다. 또한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는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지만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한비자는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노자』의 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지문해설 :** (나)는 『노자』의 도에 대한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송나라 때의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기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도와 규범의 제정 같은 인간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면서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하였다. 원나라 때의 유학자 오징은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이해하고 유학의 인의예지를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명나라 때의 유학자 설혜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주제]** 『노자』의 도에 대한 왕안석, 오징, 설혜의 견해

## 12.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나)는 『노자』의 도에 대한 송나라 때의 왕안석, 원나라 때의 오징, 명나라 때의 설혜의 견해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도’라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한비자』가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의 사상이 담긴 저작이라고 하면서 한비자가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한비자가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하였다고 하면서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노자』와 관련하여 왕안석, 오징, 설혜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을 뿐 이들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노자』의 도에 관한 한비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노자』에 대한 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가)는 한비자가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였다고 하면서 한비자의 견해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가)가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한 것은 아니다.

---

### 13.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도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서,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인간의 욕망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한비자는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 것이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보았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라고 보았다. 한비자는 도를 만물의 근원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개별 법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 1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오징은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지었다. 또한 인의예지,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체계를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그러므로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설혜는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은 노자 사상이 유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오징은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인의예지는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노자』가 유학 덕목의 등장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이 유학 덕목의 등장과 관련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한 것도 아니다. 설혜는 ㉡에 따라 『노자』에서 인의 등의 유학 덕목을 비판한 것을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하여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② 오징은 도교를 주술적인 종교로 간주하고 사람들이 도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 『도덕진경주』를 저술하고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따라서 ㉠이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다. 설혜는 ㉡에 따라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③ 도교가 유학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은 도교를 여전히 주술적인 종교로 보고 ㉠에 근거하여 도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에 따라 설혜는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고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에서 오징은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유학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혜는 ㉠에 따라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였으나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 1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오징은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으므로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징은 또한 도를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왕안석은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므로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왕안석은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사회 제도의 규범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② 왕안석은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하였으며, 사회 제도의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에 동의하지 않고 ㉢에 동의할 것이다. ③ 왕안석은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므로 ㉡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제도의 규범은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에 동의할 것이다. ⑤ 오징은 사회규범과 사회 질서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과 ㉢에 동의할 것이다.

### 16.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왕부지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냄으로써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다. 즉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나)의 설혜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이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는데, 이는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한 것으로,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냄으로써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왕부지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왕부지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가)의 한비자가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② 왕부지는 『노자』에서 아무런 해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의 왕안석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다.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의 오징이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한 것에 대해 왕부지는 잘못이라고 볼 것이다. ④ 왕부지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의 오징이 유학자의 입장에서 인의예지를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본 것을 비판할 것이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담기다’는 ‘어떤 내용이나 사상이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되거나 반영되다.’의 의미로, ‘화폭에 경치가 담겨 있다’의 ‘담기다’가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어떤 물건이 그릇 따위에 넣어지다.’의 의미이다. ③ ‘액체 속에 넣어지다.’의 의미이다. ⑤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가 버무러지거나 물이 부어져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보관되다.’의 의미이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김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고전소설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소설이다. 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후, 황제의 명을 받아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고 용왕의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천상적 존재가 적강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주인공이 비인간의 형태로 태어나 고통을 감내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모습을 찾는 서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금방울전」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에는 요괴(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주인공(김원)이 공주 등의 도움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주제]** 요괴로부터 공주를 구출해 내는 김원의 영웅적 활약

---

##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황상과 여러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상하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아귀를 향해 달려드는 한세충과 아귀의 대화를 통해 그들 사이의 적대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④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인물의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과 세 공주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황상의 충격이 나타나 있으며, 그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황상은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자 크게 놀라며 본인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지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신하들 중에서 누가 아귀를 잡아 한을 씻을 수 있을지 묻고 있다. 따라서 황상이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 중 이우영은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모가 넉넉한, 전 좌승상 김규를 불러 문의해야 한다고 황상에게 아뢰고 있다. 따라서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 김규를 부를 때 승상은 원을 데리고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황상을 찾은 승상은, 세 공주를 일시에 잃은 황상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철마산'에서 무예를 익히던 자기 자식이 아귀를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간 일을 보았음을 아뢰면서 자기 자식을 황상에게 천거하고 있다. 따라서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좋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이를 공주와 공유하고, 공주는 '협실'에서 아귀가 잠들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

원(원수)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황상은 조서를 승상 김규에게 보내면서 ㉠을 통해 공주를 잃은 통한을 승상에게 드러내고 있고,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와 같이 말하여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는 아귀에게 공주를 잃은 황상의 통한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와 ㉡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남두성(김원)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아귀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시녀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는 승상이 황상에게 올리는 충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다. ④ 승상은 자기 자식인 원이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기 자식을 불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청하고 있으므로 ㉡가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을 통해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술에 취하게 하려 하고 있으므로 ㉠가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한 말로 볼 수 없다. ⑤ ㉢에는 남두성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따라서 ㉢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와 같이 말하며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볼 수 없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원수는 원수 자신의 칼로 기둥을 쳐 보라고 하는 막내 공주의 말에 기둥을 쳤으나 반쯤 부러지는 데 그쳤다. 이에 공주가 크게 놀라 아귀에게 그 칼을 썼더라면 큰 화가 미칠 뻔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수가 아귀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칼이 아니라 아귀가 쓰던 비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세에 무쌍한 무

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좌장군 서경태는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아귀를 꾸짖으며 칼을 들어 치다가 아귀 입으로 들어갔으나, 황상을 뺏고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서경태와 원수는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인 아귀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②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에게 당하자 황상은 크게 놀라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라고 한다. 이에 정서장군 한세충은 아귀를 베어 황상께 바치겠다며 아귀에 대적하려 나간다. 아울러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이었던 김규를 부르자 승상은 나라에 발생한 변란에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황상을 뺏고 자신의 자식을 불러 아귀에게 대적하도록 충언을 올린다. 따라서 한세충과 승상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귀는 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 거의 닳자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한다. 따라서 주인공인 원과 적대자인 아귀는 피할 수 없는 대결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서장군 한세충이 아귀를 치러 나가자 아귀는 입을 벌려 숨을 내 불어 황상과 만조백관을 오 리나 밀어낸다. 그런 후에 궁중이 텅 빈 것을 본 아귀는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가는데, 이에 황상은 공주를 잃은 일에 대한 통한을 느낀다. 한편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공주에게 계교를 일러주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는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공주는 이 계교에 따라 아귀를 잠들게 하고 아귀의 비수를 원수에게 가져다 준다. 따라서 공주는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사건 해결을 돕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복합 - (가) 김종길, '문' /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

지문해설 : (가)는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문'이 닫혀 있는 모습에서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으며, 새벽이 오며 '문'이 열리는 모습을 통해 암울했던 시절이 지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다. 이 시가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발표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가)는 일제 강점의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을 표출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희망찬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감격

---

(나)는 수양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 제약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와 협력의 가치를 탐구한 작품이다. 화자는 ‘~은/이 아니었을 것이다’, ‘~ 아니었으면’, ‘~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 표현의 진술들을 활용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준 존재들을 부각하면서, 심지어 가지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들, 즉 비나 폭설, 그리고 담 자체마저도 가지가 신명 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

(다)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 주고 있다. 글쓴이는 천하의 걱정거리가 있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며,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삶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내적인 것을 잊고 외적인 것을 잊지 못하는 삶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주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필요성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색채어 ‘푸른’이 3연, 4연, 5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1연과 3연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을 것이다’와 2연에서 ‘~이(가) 아니었으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명시적 청자로 설정된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는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에서 사라져 가는 대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사라져 가는 대상이나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수양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관조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에서는 세태를 관망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 (나)의 경우 대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다)의 경우 글쓴이가 이흥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므로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해들 적마다’ 벽에 나뭇가



지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모습이 천년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이를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는 것은 인간 역사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단청의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가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주춧돌’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는 것과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은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달혀진 문’이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명 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것은 수양의 가지와 뿌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손을 터는’ 것은 꽃과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고집 센’은 ‘비’의 성격을, ‘도리 없는’은 ‘폭설’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지로 하여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비’나 ‘폭설’이 아니라 ‘담’이다. 따라서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은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담 밖을 가둬두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무명에 획을 긋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가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담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않았

---

다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대상들, 즉 뿌리, 꽃과 잎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비, 폭설, 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는 수양과 마찬가지로 담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관계를 앞에서 언급한 뿌리, 꽃과 잎의 의미나 비, 폭설, 담의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있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는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상황이다. 글쓴이는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 글쓴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에서 글쓴이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던진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 ㉡에서 글쓴이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먼 것'과 '가까운 것', 그리고 '새것'과 '옛것'은 모두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처럼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는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잊음에 대한 생각, 즉 대조적 관계를 지닌 대상 중에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잊게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글쓴이는 잊어야 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늘이 내리는 별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질시의 눈길을 받거나, 귀신이 내리는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잊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문'은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여 있는 '천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모습을 보인다. (나)에서 '가지'는 담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담 밖'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벽이 오는 순간 닫힌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가지’는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문’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에서 화자는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지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문’이 외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가지’ 역시 외면의 변화나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 ‘문’이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나)에서 ‘가지’가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2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담’이 가지에게는 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박’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담’이 ‘가지’에게 양면적 속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화자는 ‘수양’을 ‘가지’, ‘뿌리’, ‘꽃과 잎’으로 나눠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혼연일체’라고 말하여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② (다)의 2문단에서는 ‘잊어도 좋을 것’에 대해, 3문단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3문단에서 글쓴이는 효심, 충성심, 의로움, 예의, 분수, 도리 등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으로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꼽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담쟁이 줄기’가 담을 타고 올라가 담을 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의 4문단에서 글쓴이는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내적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외적인 것’은 잊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28~31] 현대 소설 - 박태원, '골목 안'

**지문해설** : 1939년 《문장(文章)》에 발표한 작품으로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서사의 대부분은 복덕방을 하는 순이네 영감('집주름 영감') 식구가 사는 '골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의 대화에 할애되어 있다. 이 작품의 '골목 안'은 당시 경성의 빈곤층이 사는 골목의 전형이지만, 이 골목 안에 사람들의 어려움은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불단집'이 있는가 하면, 이 집 집안일을 봐주는 '갑순이 할머니네', 남의 집 행랑에서 사는 '갑득이 어미네'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제시문은 순이네 영감의 딸 '정이'가 '갑득이 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갑순이 할머니'가 나와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과 '갑득이 어미'의 남편 '양 서방'이 '갑순이 할머니'가 관리하는 뒷간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후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장면이다.

**[주제]**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자기 딸('정이')을 꾸짖었으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 배지 못한 행랑것과 무슨 싸움이냐, 똥은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다'와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갑순이 할머니'가 저녁때 돌아온 남편 '집주름 영감'과 '그런 상것하고 욕지거리를 하지 마라,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 '그 배지 못한 행랑것', '그런 상것'은 '갑득이 어미'를 가리킨다. 이처럼 '갑순이 할머니'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갑득이 어미'에 대한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갑순이 할머니'의 딸 '정이'와 '갑득이 어미' 사이에 '별의별 말'이 오가는 말싸움이 벌어졌으나, '갑순이 할머니'는 딸을 나무라면서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또 이후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의 다툼이 일어나지만,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한 것으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해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가 다투자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순이 할머니'와 '집주름 영감' 내외는 '갑득이 어미'를 두고 '그 배지 못한 행랑것', '그런 상것' 등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차별적 언행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히는 곤경에 처한 상황이 나타난다.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된다. 이 일로 ‘갑득이 어미’는 흥분하여 ‘갑순이 할머니’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고 ‘양 서방’도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자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 29.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을 두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애아범(양 서방)’이 미워서(동기) 뒷간 속에다 가두는(행위) 심사를 부렸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갑순이 할머니’는 [B]에서 그런 말은 괜한 소리라고 자신은 모르고 자물쇠를 채웠다고 발명한다. 그러므로 ‘갑순이 할머니’가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애 아범’이 미워서 뒷간 속에 가뒀냐,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으냐면서 ‘갑순이 할머니’를 반복적으로 추궁한다. ②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의 비난에 대해 그러한 말은 괜한 소리라고 하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다. ③ [C]에서 ‘갑득이 어미’는 모르고 그랬다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대해, 알고 한 짓이며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체하며 잠가 버린 거라고 추측하며, 억울해하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반박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⑤ ‘갑득이 어미’는 [A]와 같이 ‘갑순이 할머니’에게 화를 낸다. ‘갑순이 할머니’는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었기에 [B]에서와 같이 당황하며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을 방어한다. 그렇지만 ‘갑득이 어미’는 [C]에서 보는 것처럼 ‘갑순이 할머니’를 불신하면서 몰아붙임으로써 둘의 갈등은 지속된다.

## 30. 인물의 태도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집주름 영감’은, ‘분별은 있을 아이(정이)’가 ‘그런 상것(갑득이 어미)’하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다. 이에 호응하여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들하고 하는 건 하늘 보고 침 뱉기라고 대꾸한다. 그러므로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그의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가 밝힌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 부부는 ‘갑득이 어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집주름 영감’의 말이 을득이에게 들려 결과적으로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해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만, ‘양 서방’은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여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한다. ③ ‘양 서방’은 뒷간에 갇혀 여러 궁리를 하였지만 수상한 인물처럼 느껴질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아내에게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해 뒷간에 갇히게 되었다고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비난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갑순이 할머니’가 자물쇠를 채울 때 얼른 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식으로 ‘매우 겸연쩍게’ 말했기에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 늙은이두 제엔장헬…….’로 보아 ‘양 서방’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 알고 있었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의 반응 이후이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인 동시에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바에 대한 진술이기에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갑득이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에서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순이 할머니’가 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기 위한 시간의 지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네 잘못이야’라며 딸을 나무라지만, 그 ‘잘못’의 진짜 의미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했던 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에서 ‘~라 한다’의 주체는 인물 ‘을득이’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에서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양 서방’이 소리를 질러 볼까 하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에서 감탄사(‘오오’)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득이 어미’가 얼른 소리를 내지 못해 갇히게 되었다는 ‘양 서방’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유박, '화암구곡'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영조 때의 문인 김인겸이 쓴 장편 기행 가사로 그 분량이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4,200여 행에 달한다.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한양을 출발해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약 11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일본의 자연환경, 문물제도, 인물, 풍속, 일어난 사건 등에 관한 견문과 느낌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개방적인 시선을 보여 주지만, 주체적 정신과 화이론에 입각하여 문명국인 조선의 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월 의식에 따라 타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와 함께 장편 기행 가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국문학의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역사학 자료로서도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주제] 통신사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과 감상

(나)는 조선 영조, 정조 때의 문인이며 화훼(월예) 전문가인 유박의 『화암수록』이란 책에 수록된 연시조이다. 유박은 황해도 향촌에서 화원을 조성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꽃에 대해 품평하고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분재를 만들어 감상하며 풍류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출사하지 못한 선비들이 향촌에 머물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강호 시가의 전통을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주제] 향촌 생활의 만족감과 분재에 대한 애정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열두 발 쌍뚝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등은 대풍이라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배와 쌍뚝대, 초석 돛 등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중략) 이전은 화자가 일본으로 출항을 한 후 대풍을 겪는 위험한 상황을, (중략) 이후는 화자가 조선으로 돌아와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의 배려에 감격하고, 가족과 친척을 만나며 기뻐하는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가)의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는 사행 과정을 회상하는 비유적 표현인데,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제6수>의 '양류풍(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봄이라는 계절과 연결할 수 있으나, (나)는 향촌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 <제6수>에 '초동(떨나무를 하는 아이)'과 '목수(가축을 치는 늙은이)'라는 두 인물이

---

나타나지만, 이들은 화자가 여유롭게 소일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화자를 가리키는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서로 대비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와 (나) <제1수>의 ‘너뿐인가 하노라’ 등에서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대상에 대해 경외감(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C]의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는 처자식들이 사행을 다녀온 화자와 재회한 후 너무나 기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그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없이 무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연해 각진포에 /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에서 출항 후 일본으로 이동하는 선상에서 조선 연안의 군영과 포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과 육지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임금(나라)은 무더운 날씨에 땅에 엎드려 결과를 보고하며 땀을 흘리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천은이 망극하다’는 감격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의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 아무것도 아니 뵈고’에서 화자가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B]의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숨을 여쭙으니 /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 물 흐르듯 하는지라’에서 화자가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대풍이 불어 성난 물결을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을, [C]에서는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를 통해 과거의 위험했던 사행 경험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 가뜩이 심란한데’에서 화자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는 화자가 벼를 갈고, 설을 치고, 소를 먹이는 자신의 향촌 생활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며 자족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에서 알 수 있다. ② (나) <제1수>의 초장과 중장은 화자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분재로 조성한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종장에서 ‘화암 풍경이 너뿐인



가 하노라'라고 하며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 하니 /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에서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제1수>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에서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마지막 행인 '강호의 산 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를 통해 화자는 처자식이 있는 공주의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제6수>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에서 화자는 '양류풍'이 불어오는 자연의 양상에 감응하며 자기 뜻대로 세월을 보내는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④ 37. ① 38. ③ 39. ④ 40. ② 41. ① 42. ⑤ 43. ③ 44. ③  
45. ⑤

[35~36] 언어

[35~36]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단어의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용자례의 예시 단어를 바탕으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실제 쓰임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어들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1문단에서는 초성자와 종성자의 제자 원리를 안내하고, 종성자에는 초성자 중에서 8자만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 초성자 용자례, 중성자 용자례, 종성자 용자례의 예시 단어들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글자들이 실제로 단어에 쓰인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서는 용자례에 수록된 단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은 변화의 양상을 '표기법이 변화한 경우', '실제의 소리가 변화한 경우',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주제] 훈민정음 용자례와 이 중 일부 단어들이 겪은 변화

35.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러울'인데, 이 단어의 초성자와 종성자의 'ㄹ'은 반설음자이다. 따라서 '러울'로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를 예시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성자의 기본자 5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종성자의 기

본자 3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② 초성자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 중 ‘ㅇ’은 종성자에 쓰이지 않았다. 용자례에 제시된 ‘콩, 부형, 남상, 굶병’에는 종성자로 ‘ㅇ’이 쓰였다. ③ 가획자는 9자인데 <초성자 용자례>에는 8자만 단어가 예시되어 있다.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가획자는 ‘ㅎ’으로 ‘ㅇ, ㅎ’과 같이 후음에 속한다.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브섭’인데, ‘ㅅ’은 받침음 이체자이지만 ‘ㅂ’은 순음 가획자이다.

### 36. 국어의 변천

**정답해설** : ‘거미’(>거미)는 ‘ㄱ → ㄴ’의 변화가 드러날 뿐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딘’(>진)에서는 ‘덜’(>절)과 같이 ‘ㄷ → ㅈ’의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② ‘서울’(>서울)에서는 ‘섬’(>섬)과 같이 ‘ㅍ → ㅑ’의 단모음화가 일어났다. ③ ‘풀’(>풀)에서는 ‘물’(>물)과 같이 ‘ㅍ → ㅑ’의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⑤ ‘닥’(>닥나무)에서는 ‘갈’(>갈대)에서 ‘갈’에 ‘대’가 결합한 것과 같이 ‘닥’에 ‘나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 [37, 38, 39] 언어

### 37. 품사의 특성(용언)

**정답해설** : ㉠의 ‘노랑- + -아 → 노래’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양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조그맣- + -아 → 조그맣’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 + -어서 → 이래서’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는 ㉡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꺼멩- + -어 → 꺼메’, ‘뿌엩- + -었다 → 뿌엩다’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조화가 적용되므로 ㉠-2 유형에 해당한다. ③ ㉡의 ‘어떻- + -어 → 어때’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등그렁- + -었다 → 등그렷다’, ‘멀격- + -어 → 멀게’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조화가 적용되므로 ㉠-2 유형에 해당한다. ④ ㉢-1의 ‘달아’는 규칙 활용이면서 활용형의 줄어들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날- + -아서 → 날아서’, ‘땅- + -았다 → 땅았다’ 역시 ‘\*나서, \*땀다’로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1 유형에 해당한다. ⑤ ㉢-2의 ‘놓아(→ 놔)’는 규칙 활용이면서 활용형의 줄어들이 가능한 경우이다. ‘넣어’, ‘짚아’는 ‘\*너, \*쌈’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2가 아닌 ㉢-1 유형에 해당한다.

###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의 '시간'은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인 6시를 뜻한다. ㉡의 '1시간 앞서'는 ㉠의 영화 시간 6시를 기준으로 하며, ㉢의 '미리'도 ㉠의 영화 시간 6시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때를 가리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화의 시작 시간을 가리키는 ㉠과 ㉡은 같은 시간이다. ② ㉠의 '미리'는 '어제'라는 과거를 가리키지만, ㉢의 '미리'는 지혜와 평화가 영화가 시작하기 전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한 5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를 가리킨다. ④ ㉢의 '가지'는 지혜와 평화가 영화관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 '와'는 영민이 학교에서 상담을 마치고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동의 출발 장소는 서로 다르다. ⑤ 동일한 장소인 분식집이 영화관을 등지느냐, 마주보느냐에 따라 영화관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가 결정된다.

### 39. 문장 성분(부사어)

**정답해설 :** '전혀'는 부사로, 관형어 '딴'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한순간에'는 '체언+조사'로, 서술어 '해결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방긋이'는 부사로, 관형어 '웃는'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참'은 부사로, 부사어 '귀엽게'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② '조금'은 부사로, 관형어 '굽은'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세로로'는 '체언+조사'로, 서술어 '그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③ '무턱대고'는 부사로, 관형어 '싫어하는'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많이'는 부사로, 서술어 '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⑤ '원칙대로'는 '체언+조사'로, 서술어 '처리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깔끔히'는 부사로, 서술어 '처리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

[40~43] 매체

### 40.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진행자'는 일곱 번째 발화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말하며 '전문가'에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를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문가'의 발화에는 앞서 제시한

정보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텔레비전의 매체적 특성상 시청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진행자'는 '오늘 방송은 공식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방송 내용을 방송 이후에 다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가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가)는 주로 '진행자'와 '전문가'가 문답의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첫머리에서 '전문가'가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 방송 내용을 재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진행자'의 발화에서 방송의 취지를 밝히며 방송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41.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나)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과 작성일은 확인할 수 있지만,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게시물의 하단에 '좋아요'라는 버튼을 제공하여 게시물을 읽은 사람들이 게시물에 대하여 공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게시물의 하단에 '누리소통망 공유'라는 버튼을 제공하여 게시물을 누리소통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누리집의 상단에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 등의 메뉴를 두어 게시물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게시물의 끝에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송사 누리집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여 동아리 부원들이 방송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성호'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다룬 내용에 주목하면서,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문 규범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믿음이 갔어요.'라는 내용을 통해, '단비'가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된 이유'와 '제가 본 이 내용이 동아리 부원들의 어문 규범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단비’가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 썼다는 것도 알았고.’와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라는 내용을 통해, ‘아림’이 발음 실태 조사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했던 ~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내용을 통해, ‘준서’가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보조 동사 ‘못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에 쓰인 ‘못하다’는 반영을 하였지만 그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본 적’에는 과거의 의미를 더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쓰였는데, 이를 통해 ‘진행자’는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라는 ‘전문가’의 직전 발화와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② ‘(누가)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다.’와 비교해 볼 때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다.’처럼 피동 접사 ‘-되다’를 쓰면 행위의 주체인 ‘(누가)’가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을 두게 된다. ④ ㉢에 쓰인 ‘-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를 지닌다. ‘표준어가 되는 거죠.’와 비교해 보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죠.’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⑤ ‘진행자’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이유’를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듣고 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4~45] 매체

#### 4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에서 ‘창규’는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에 답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정호’의 첫 번째 글에 답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 ‘미희’는 ‘오!!! 와!!!’와 같이 느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학교생활 안내 앱’ 업데이트에 학생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다 반영된다는 것에 대해 강한 긍정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진아’는 동의를 나타내는 ○표를 들고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원’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

---

④ ㉞에서 '미희'는 '이걸 어떻게 알려 줘야 하지? 난 단체 문자로 알려 주면 좋겠어.'와 같이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㉞에서 '진아'는 줄을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입력하여,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 외 추가된 것'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다.

#### 45. 정보 구성 언어

**정답해설** : (나)에서 '미희'와 '동주'는 '검색' 메뉴에도 도움말을 넣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화면에는 '검색' 메뉴에 대한 도움말이 새로 추가되어 있다.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가)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도움말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정한 화면의 '학습 & 활동 자료' 도움말에는 '창규'와 '정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자율 활동,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② 수정한 화면의 '학습 공간 이용 예약' 도움말에는 '가원'과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약이 가능한 곳인 '도서관 자습실'과 '모둠 활동실'이 추가되었다. ③ (가)에 있었던 '공지 사항' 도움말은 '정호'와 '가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화면에서 삭제되었다. ④ 수정한 화면의 '게시판' 도움말은 '창규'와 '미희'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에서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